

서울시, 329억 투입 방역물품 확보... 집단감염 선제 대응

생활속 거리두기 안정적 정착 도모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비축
다중이용시설, 선별진료소 등 배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물품 추가 확보에 나선다. 시는 비축된 방역물품을 적기·적소에 공급해 생활 속 거리두기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총 329억5000만원을 투입해 보건용 마스크 2150만장, 손소독제 10만병, 방호복 10만벌, 비접촉식 체온계 2만개 등을 사들일 계획이다.

시가 확보한 방역물품은 감염병 재확산을 막고 유사재난에 대비하는 데 쓰인다. 시는 방역물품 공급이 불안정할 때 비축된 물량을 배포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오는 12월까지 1차 추가경

〈방역물품 추가 확보 계획〉

물품명	확보시기	확보수량(단위:개)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소요재원	비고
보건용마스크(KF)	5~12월	10,000,000	10,000	추경(1차)	국산
보건용마스크(KN95)	5~6월	11,500,000	18,000	재난관리기금·재난안전특별교부세	중국(수입)
손소독제(거치형)	5월	100,000	600		국산
방호복	5월	100,000	2,750		중국(수입)
체온계(비접촉식)	5월	20,000	1,600		중국(수입)

정예산 가운데 100억원을 사용해 국산 KF94 마스크를 추가로 확보한다. 기존 계약분 중 입고 예정인 330만장에 670만장을 더해 1000만장을 미리 모아두기로 했다.

시는 “현재 식약처에서 지자체 출고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대량 수급이 어려우나 6월 30일 이후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완화되면 계획대로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N95 마스크 1150만장(180억원어

치)은 중국에서 수입해올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달 중으로 예산 6억원을 사용해 국산 거치형 손소독제 10만병을 구비하기로 했다. 손소독제의 경우 서울시에 대량 공급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다수여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시는 전했다.

방호복 10만벌과 체온계 2만개는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마련한 재원 각 27억5000만원과 16억원을 투입, 중국에서 사오기로 했

다.

앞서 시는 지난 2~4월 보건용마스크 222만장을 확보해 의료기관과 감염취약계층에 약 70만장을 배부한 바 있다. 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19만8200장 ▲커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 4만6000장 ▲임신부(1인 5매) 19만3300장 ▲방문요양보호사 4만장 ▲고위험 산업현장 청소노동자 1만2414장 ▲다산콜센터 전화상담원 3000장 등 총 69만4669장을 지원했다.

/서울시

시는 그간 비축한 거치형 손소독제 4만2761병 가운데 2만3851병을 학원·교습소(1만2000병), PC방·노래방·유흥주점과 같은 점검대상 다중이용시설(5716병), 콜벤 운수종사자(2250병) 등에 보급했다.

구매와 기부를 통해 확보한 방호복 11만5220벌(구매 5만벌·기부 6만5220벌)은 선별진료소(6만5220벌), 해외입국자 수송에 투입된 버스·택시·콜벤(1820벌), 자가격리자 투표 지원요원(2525벌)에 나눠줬다.

적외선 체온계 6만6500개는 동주민센터와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6만6400개를 지원하고 100개를 비축 중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의료방역물품 비축물량 부족으로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보건용 마스크, 보안경, 열화상 카메라 등 의료방역물품을 재난관리기법 상 재난관리자원으로 추가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민, 정부·시 재난지원금 둘 다 받는다

요건 충족 4인가구 최대 144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시 10% 추가
오늘부터 온라인 수령 가능

서울시는 시가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수령이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요건이 되는 서울 지역 4인가구는 최대 144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액수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0%를 더 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중정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직접수령) 중 하나를 선택해 받으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된다.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신청 방식도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우리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앱(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접수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 취약계층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취약계층이 아닌 국민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수령도 온라인으로 11일부터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의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18일부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상황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영등포시장역 조성안.

/서울시

서울 노후 지하철, 문화예술공간 탈바꿈

서울 14개 노후 지하철 역사가 열린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2640억원을 투입해 14개 지하철역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특화 시범역’으로 선정한 5호선 영등포시장·군자역과 1호선 종로5가·동대문·신설동·서울·종각·종로3가·제기동·청량리역, 4호선 한성대입구·쌍문·미아·서울역 등을 보수한다.

시는 영등포시장역을 ‘시장의 재발견’을 주제로 꾸미기로 했다. 지하 1층 대합실에는 달마다 베틀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마켓’을 만든다. 지하 2층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라운지’를 조성해 카페, 전시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공실 상가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랩’을 조성, 유튜브 콘텐츠 제작실이나 제품 촬영 스튜디오 등으로 쓴다. 역사 내 계단은 ‘계단 미술관’ 형태로 만들어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군자역은 일부 구역을 ‘열린 미술관’으로 만든다. 군자역 5호선 승강장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통로 구간 내 유희공간을 활용, 미디어 베이스 전시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1호선 8개 역은 1974년 개통해 시설물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마감재와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역마다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AI 분석기술’로 지반침하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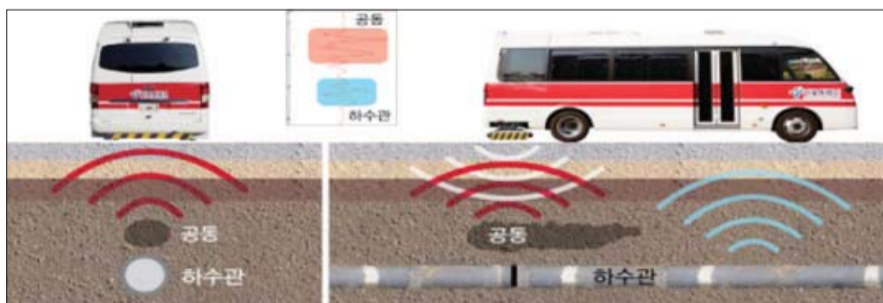
동공 자동분석 프로그램 개발

서울시는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땅속 빈 공간인 동공을 기존의 5배 속도로 빠르게 탐색하는 ‘AI(인공지능) 기반 동공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3월부터 현장에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동공탐사는 탐사장비를 통해 모은 자료를 사람이 일일이 수동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약 10km 구간을 탐사 분석하는데 5일이 소요됐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탐색해 분석 시간이 하루로 단축된다.

시는 지난 3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18km 구간(16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나서 동공 13개를 발견했다.



서울시 동공 조사 방법.

/서울시

시는 향후 도로함몰과 같이 긴급조사가 필요한 구간이나 자치구가 요청하는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동공탐사를 할 때 ‘AI 기반 동공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5년(2015~2019년)간 총 9385km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동공 3993개를 발견하고 굴착 복구를 완료했다. 지반침하는 2016년 85건에서 지난

해 19건으로 줄었다.

시는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AI 자동 분석 정확도를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번에 도입한 AI 기반 동공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속도가 빨라지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 67% “市 코로나 대응 자부심 느껴”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서울시민 코로나19 위험인식 설문조사’에서 시의 방역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지난 4월 28일~5월 1일 시민 81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험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5%는 서울시와 서울시시장의 공적 대응에 신뢰를 나타냈다.

66.9%는 서울시, 민간 의료인·의료

기관, 시민 전체를 포괄하는 서울의 코로나19 대응에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67.7%는 코로나19 경험에 서울시에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고 답했고 54.7%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서울이 세계 도시의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응답자들은 서울보다 전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봤다. 서울시민은 전국적인 상황에 비해 약 10%p 정도 위험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 /김현정 기자